

彝族과 漢族의 文化接變 樣相 研究*

- 雲南省 彝族의 精神文化를 중심으로

김 덕 삼**
(대진대학교)

341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소수민족의 사상과 가치관이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다시 그들의 삶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토대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적인 논의보다, 과거 및 현재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매우 다양할뿐더러,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광활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지역과 민족을 한정시켰다. 그 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역사가 길며, 정체성과 문화가 선명한 민족, 그리고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雲南省외에도 다른 지역에 있어, 차후 비교 연구가 가능한 민족, 분포 면적이 비교적 넓으면서도 집성촌이 있는 민족, 변화의 양상이 뚜렷한 민족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민족과 지역으로 彝族과 雲南省을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B00294).

**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선택하였다. 彝族은 雲南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雲南省 동북 및 중부 지역과 북부지역에 471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雲南省은 소수민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각각의 민족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곳이다. 이런 측면에서 雲南省은 문화접변,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등을 연구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文化接變(acculturation)이란 두 문화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문화변동을 지칭한다. 즉, 서로 다른 문화 체계가 접촉하여 원래의 문화 유형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원래의 문화 유형과 다른 새로운 문화 유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문화간의 상호 작용도 결국 문화 전파로서 가능하다. 그것이 직접 전파든 간접 전파든 혹은 자극 전파든, 문화 전파는 한사회의 단위를 넘어서 다른 사회로 문화 요소가 전해지는 것으로, 이는 결국 문화 변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접변은 대개 자발적인 문화접변과 강제적인 문화접변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문화 수용의 태도가 자발적이나, 혹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냐가 그 구분의 기준이 된다.¹⁾ 본고에서는 문화접변의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정확하게 말해 漢族과 彝族 두 문화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보다 彝族의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漢族의 정신문화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그것은 아마도 연구대상인 소수민족의 열악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주로 진행되었던 문화인류학적 조사단계의 연구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소수민족 연구는 현재 중국이 진행하는 東北工程이나 티베트 문제 같은 사항과 맞물려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주변지역과 주변국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우리 한국에게도 國境, 韓國 古代史, 民族 問題

1) 김덕삼, 「문화접변으로 바라본 소수민족 교육」, 『教育問題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6, 145쪽.

등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역량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민족의 문화적 수준에 근거해, 과연 소수민족에게 철학이 있느냐는 의문에 대한 반성도 해보아야한다. 물론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견해에, 과연 철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기에 그런 의문을 던지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철학의 개념에 대하여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한다. 이는 유럽이 다른 문명을, 중국이 다른 지역을 무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모른다. 『中國哲學史』는 馮友蘭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썼으며, 중국학술 업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 그러나 두 가지 무관심을 공통되게 지녔다.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내린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여긴다. 중국철학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철학과 연결시켜 함께 다루지는 않는다. 중국철학이 홀로 대단하다고 여기고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철학을 해온 줄 모른다.”²⁾ 이는 유럽에서 유럽철학사를 내놓으면서, 철학이 자기네의 독점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유럽사나 유럽문학사에서는 동일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역사나 문학은 유럽에만 있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철학만은 유럽의 독점물이라고 한다. 이치를 바르게 따진다는 철학에서 유럽의 독선을 표면화했다. 그것은 다른 문명권에 대한 야유나 도전이다.”³⁾ 이러한 관점은 유럽이 다른 문명권에 갖는 독선처럼 중국이 동아시아의 철학에 대하여 갖는 편견이나, 혹은 소수민족철학에 갖는 편견과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이에 대해 우리도 소수민족의 철학에 대하여 과연 그들에게 철학이 있느냐는 야유적인 반문과 무시를 은연중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한다. 과연 철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인가?⁴⁾ 그러나 여기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논의

2)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350쪽.

3) 조동일, 앞의 책, 347쪽.

4) 일본의 경우는 그래서 철학이라는 용어대신에 일본사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인도는 철학의 개념에 의문을 던지면서, 유럽의 철학이 이치만을 따지는 것보다 커다란 통찰력을 얻고 정신으로 정화하는 것까지 포괄하면서, 그 유산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산스크리트의 용어 ‘다르사나’(darsana)를 사용하였다. 또한 아랍어문명권에서는 국가구분을 완전히 넘어서서 문명권 전체의 철학사를 재인식하고 재평가

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 정신문화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그렇다고 이것이 소수민족에게 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소수민족과 漢族간의 문화접변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彝族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 彝族의 정신문화와 彝族의 정신문화 속에서 발생한 漢族 정신문화의 수용, 그리고 이것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II. 彝族의 現況

彝族은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660만 명이고, 국외에는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총 인구는 776만 2,272 명으로,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7번째로 많다. 雲南省에 거주하는 彝族은 2007년에 11%를 차지하며 漢族 다음으로 많다.⁵⁾ 彝族의 기원에 대해서는 南方土着說과 북방의 羌族說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彝族의 조상은 황하 상류 지역에 거주하였다가 남하하여, 양자강 상류의 진사강, 민강 근처에 정착하였고, 彝族은 白族, 納西族 등과 더불어 羌族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이들이 남하하여 四川省과 雲南省 일대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한대에는 西南夷, 삼국시대에는 南蠻이라고 불렸던 무리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元, 明, 淸 시대에 黑彝의 세력이 강하여, 중국의 역대 왕조는 이들을 제어하려고 노력하였다. 彝族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티베트어족, 티벳·버마어 계통으로 미얀마어 지류에 속하는 彝語를 사용한다. 그리고 彝族의 언어는 버마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언어에는 여섯 종류의 방언이 있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약 천 년 전에 만들어 졌다는 음절 문자 爨文이 있다.

했다. ‘릴로소파’에 해당하는 이성철학 ‘팔사파흐’(falsafah)만 다루고 통찰철학이라 할 수 있는 ‘히크마흐’(hikmah)는 논외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고, 그 전체를 다루는 철학사를 내놓았다(조동일, 앞의 책, 347~348쪽).

5) <http://www.yn.gov.cn> 검색일 2011년 10월 8일.

彝族은 주로 중국의 雲南, 四川, 貴州, 광서 장족 자치구 등을 비롯하여, 베트남, 미얀마, 타이에도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⁶⁾ 특히 四川省 凉山彝族自治州에 67% 정도가 살고 있고, 이밖에 雲南의 楚雄彝族自治州, 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 등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凉山은 雲南省과 四川省의 경계에 있어서, 四川省에 속하는 곳을 ‘大凉山’, 雲南省에 속하는 곳을 ‘小凉山’이라고 부른다. 彝族이 중국에서 자신들만의 자치구를 인가받아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自治州와 自治縣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구는 모두 3곳이 있다. 四川省에는 凉山彝族自治州이 있고, 雲南省에는 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과 楚雄彝族自治州이 있다. 자치현은 모두 17곳이 있는데, 貴州省에는 馬邊彝族自治縣, 峨邊彝族自治縣으로 모두 2곳에 이른다. 雲南省에 있는 자치현은 峨山彝族自治縣, 寧蒗彝族自治縣, 石林彝族自治縣, 江城哈尼族彝族自治縣, 巍山彝族自治州, 南河彝族自治縣, 尋甸回族彝族自治縣,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 新平彝族自治州, 漾濞彝族自治州, 禄勸彝族自治州, 景東彝族自治州, 景谷傣族彝族自治州, 寧洱哈尼族彝族自治州, 鎮沅彝族自治州, 祜族自治縣 으로 모두 15곳에 이른다. 그래서 3곳의 자치주와 17곳의 자치현이 있다.

彝族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달랐지만, 지금은 彝族으로 통칭하여 부른다. 이들의 거주 지역이 넓은 관계로 彝族의 경제생활과 생활 습속이 조금씩 다르다. 물론 이러한 차이에 따라, 각 지역에 따른 彝族의 정신문화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처럼 彝族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범위와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소통이 단절된 곳이 많았기에 彝族들 간의 이질성이 심하다.

彝族 대부분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는 원시적인 종교신앙과 자연종교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凉山彝族의 경우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지만, 雲南이나 貴州 등지에 사는 彝族의 경우 정신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淸 王朝와 관련된다. 淸

6) <http://www.lsz.gov.cn> <http://www.hhepb.gov.cn/> 검색일 2011년 10월 13일.

王朝는 雲南에서 土司와 土官을 폐지하고,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는 ‘改土歸流’정책에 근거 淸 王朝가 직접 통제하였다. 여기서 四川 지역의 彝族과 雲南 지역의 彝族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四川의 涼山은 지역이 험준하여 청의 직접 통치가 실행되지 못한 반면, 雲南 지역의 彝族 거주지는 청 왕조의 직접적인 통치와 간섭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각각의 특징이 선명한 彝族의 文化에게서 공통된 특징과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彝族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다른 彝族의 특징과 습속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彝族이 거주하는 四川, 貴州, 雲南 가운데, 雲南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다른 彝族의 특징과 습속을 파악하며 연구를 확대하였다.

Ⅲ. 彝族의 精神文化

일반적으로 비물질 문화는 물질문화보다 변화의 속도가 늦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하여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비물질 문화 그중에서도 精神文化로 대표되는 宗教文化는 소수민족의 전통과 정체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 특히, 雲南의 경우 많은 소수 민족과 많은 민족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와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는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종교에서의 윤리도덕은 彝族 전통사회를 유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사상을 종교문화를 통해 엿보는 것은 중국의 소수민족 연구에 있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雲南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하나는 자연, 토tem, 조상 숭배로 구분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토착신앙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유입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기성종교다. 雲南뿐만 아니라 涼山 지역의 彝族도 애니미즘을 기초로 한 조상숭배와 자연숭배를 행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정신문화 속에서 토tem숭배에 대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涼山에서는 개, 말, 곰 고기는 토tem숭배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식용하지 않는다. 또한 彝族은 예로부터 특별히 호랑

이를 숭배하였다. 그래서 이름에 虎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호랑이가 彝族사람을 보호하고, 호랑이 상징물이 吉祥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중요한 날 짜를 정할 때도 虎日에서 정하고,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 등에서도 호랑이에 근거하여 작명한다. 예를 들어 彝族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하나인 羅羅에는 호랑이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彝族 집안의 족보를 살펴 보면, 원조는 동물의 이름, 자연현상 등과 관련 있고, 2대부터 그 집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雲南 楚雄에 거주하는 彝族의 민간 創世史詩인 『梅葛』에는 천지와 인류 만물의 기원이 호랑이의 사체가 변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반면, 彝族은 天, 地(山), 水에 대한 숭배가 특별하다. 천신은 조상신령이 하늘로 올라가 만든 것으로 천신은 천제자연숭배와 조상숭배가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자연계 각각의 사물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처해있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산에 대한 신앙이 유별나다. 그리고 산신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들에게서 神樹 신앙이 발견된다. 태초에 彝族의 조상인 남매가 살았는데, 이 때 큰 홍수가 나서 이들이 나무상자를 타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 나무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설화도 있다.

彝族의 신앙에서 조상숭배의 흔적을 살펴보면 곳곳에 다양하게 남아있다. 彝族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는 무덤이나 화장터에 남는 영혼, 집안에 남는 영혼, 조상들이 있는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영혼처럼 모두 3개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선조가 남긴 물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물건을 특별히 ‘吉羅’라고 칭한다. ‘吉羅’에는 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彝族 사람들은 집안에 남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조상은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후손으로부터 존중과 공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정윤리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雲南 각 민족의 원시종교는 초창기에 전문적인 종교 제사가 없었다. 자연신령을 경외하는 신앙 활동은 모든 민족 구성원의 일로서, 종교 활동 자체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여 복잡한 의식과 금기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종교 교육에서 교육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었다. 종교 활동이 점차 변창하고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많아지고, 의

식과 각종 금기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당시 마을의 연장자는 자연스럽게 각종 의식의 수장 역할을 맡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은 전문적인 제사 활동 집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 문자로 기록된 종교 경전을 해석하고 설명하였다.⁷⁾ 결국 이들이 종교를 비롯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畢摩’는 바로 원시 종교의 발전에 따라 탄생한 彝族의 원시 종교 지도자이자 교육자였다. 그리고 민족 구성원들 모두가 바로 종교 교육의 교육 대상자였다. 彝族에게는 비머(畢摩)와 수니(蘇尼)라고 부르는 종교인이 있다. 彝族 사회에서 남성만 될 수 있는 스승이란 뜻의 비머는 지역에 따라 바이마[白馬], 바이마[拜馬], 시버[西波], 아비[阿畢], 관바[覲巴]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彝族의 사회에 존재하였고, 정치와 민족전통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확보한 채 발전해 왔다. 비머는 세습되며 종교의식을 주축한다. 여기서 비모의 ‘비’자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고, ‘모’는 연장자에 대한 존칭이다. 이와 달리 수니는 성별과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세습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비머와 달리 경전에 정통하거나, 사회적 분쟁에 대하여 종교적 재판을 하지도 못한다. 이들 수니는 병에 걸린 사람이 산에 들어가 병이 고쳐지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수니가 되는데, 이는 비머와 비교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들은 수니가 되어 다른 이들의 치료나 굿 등을 행한다. 비머가 彝族 사회의 주류이자 상층부의 문화를 대표하는 반면에, 수니는 하층문화를 대표하며 사회적 위치를 달리한다.

IV. 精神文化의 受容

앞에서 彝族의 정신문화를 토tem 숭배, 자연숭배 그리고 조상숭배로 간략히 알아보고, 제사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漢族의 정신문

7) 김덕삼, 앞의 논문, 154쪽.

화와 문화집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이러한 것은 漢族의 정신문화 가운데에서도 道教와의 문화집변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즉, 道教는 漢族의 다른 정신문화에 비하여 彝族 사회에 비교적 잘 전달되었다. 그것은 道教의 뿌리에 소수민족의 사상 및 각종 민간신앙 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道教는 東漢末期 彝族社會에게 전파되었다. 楊學政은 중국의 초기 도교가 彝族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즉, 張道陵이 二十四治를 설치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화할 때, 蒙秦治를 金沙江의 남안에 설치했다고 한다. 이곳은 雲南의 동북과 서쪽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곳에는 羌族의 후예인 彝族, 白族, 納西族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⁸⁾

1. 도교의 수용

唐代에는 雲南省 東部에 烏蕃, 西部에는 白蕃이라고 불렀던 무리가 존재했다. 烏蕃은 黑彝의 조상으로 烏蠻이라고 불렸다. 白蕃은 白彝의 조상이 되었다. 6세기 무렵에는 대규모로 漢族에 저항하였고, 급기야 738년 唐왕조의 혼란을 이용하여 烏蕃의 일부 세력이 南詔 왕국을 雲南에 세웠다. 南詔는 唐왕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교보다는 도교를 적극 수용하였다. 또한 귀족의 자녀를 成都에 보내 漢族의 문화와 唐代의 문화를 공부하게 하였다. 그래서 유교에 대하여 공부하고, 唐王朝의 정치술과 통치방법을 배우려 하였다.

그러나 南詔國 말기에 大乘佛敎를 받아들여, 大理國 시기까지 불교가 번창하였다. 특히 白族에게 대승불교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彝族에게는 그 영향이 작았고 彝族은 여전히 원시종교신앙과 도교를 주로 숭배하였다. 그러나 도교의 영향도 雲南의 서부지역과 통치계층에 주로 영향을 미쳤고,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元代까지 雲南의 동북과 중앙, 남부 지역 등에 도교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지역들이 雲南의 중앙 권력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937년에 白族인 段思平이 大理國을 건국하였고, 이들은 南詔보다

8) 楊學政, 『雲南宗教史』, 雲南人民出版社, 1999, 序文 참조.

부강하였다. 그리고 1253년에 大理國은 몽골제국에 정복되었다. 1276년에는 운남행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쿠빌라이의 서자인 후계치를 선조로 하는 양왕가의 세습영지가 되었다. 양왕가와 대리의 단씨왕가가 협력하여 1390년까지 이곳을 지배하였다. 元代에 서남지역에서 시작한 土司制度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雲南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강하게 제압하였다. 土司制度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리는 ‘以夷制夷’의 방식으로서 간접적인 통치방식이었다. 원대와 명대에 걸쳐 소수민족 가운데 비교적 덕망이 높은 이를 선발하여 관직을 주고 土司, 土官으로 삼아 지방관으로 이용하며 간접통치를 시도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漢族의 문화를 소수민족 사회와 문화에 전파하는 작용을 하였다. 특히, 이때 중앙에서 주로 믿고 신봉하던 道敎와 儒敎가 雲南 소수민족 사회에 변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土司가 설치된 곳에는 道觀과 사찰이 있다. 결국 도교를 비롯한 중원왕조의 사상과 문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굳건히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雲南의 武定鳳 土司는 畢摩의 신분을 이용하여 도교의 경전을 번역하거나 주석하고, 도교 사상을 널리 전파하게 하였다. 그리고 全眞道의 一代 宗師인 張三豐은 雲南에 와서 직접 도교를 전파하였다. 특히, 楚雄지역의 姚安, 大姚 일대에 도교를 전파하였다.

明의 洪武帝가 양왕국을 멸망시키고 명나라로 편입시켰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雲南布政司가 설치되었다. 명대이후, 많은 漢族 유민이 雲南과 彝族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입되어 실질적으로 漢族의 영토가 되었고, 漢族의 문화와 문물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도교와 유교가 소수민족에게 많이 소개 되었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실시로 彝族의 거주지는 漢族과의 雜居로 변하거나, 漢族이 차지한 주요 교통요지를 피해 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이동한 산도 나중에는 도교에서 추구하는 수련의 장소가 되어, 이곳에 많은 道觀과 寺刹이 생기게 되었다.

明末清初 도교의 도사들이 巍寶山과 彝族 거주지에 건너와 도교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때 도교와 彝族 원시신앙 사이의 문화접변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巍寶山에는 대규모의 道觀과 많은 도사가 생겨났고, 자연스레 청초에 도교가 변성하게 되었다. 비록 19세기 말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래되

었지만 도교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太平天國 시기에 李文學이 주도한 哀牢山 彝族蜂起와 畢顧保가 주도한 武定 彝族蜂起에서, 봉기가 일어났던 초창기에는 道敎의 道士들이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李文學의 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사 王泰階 등이 있었다.

2. 漢族 哲學觀의 수용

彝族의 土着信仰은 도교의 탄생과 발전에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원시신앙의 신앙만으로 정신문화의 이론적 논리적 요구를 채울 수는 없었다. 이러한 때, 漢族의 철학관과 철학개념이 彝族의 정신문화에 수용된다. 그 속에서 토템, 자연, 조상에 대한 숭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원시신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자신들의 始原을 밝히는 창세신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彝族의 언어로 쓰여 전해 내려오는 彝族의 창세 신화와 우주관으로는 『創世記』, 『洪水氾濫史』, 『人類的起源』 등이 있고, 문답형식으로 자연관을 서술한 『宇宙人文論』을 비롯하여, 『宇宙源流』, 『彝族源流』 등이 있다. 또한 『梅葛』, 『阿細的先基』, 『勒俄特依』, 『查姆』 등의 原始史詩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彝族의 우주 생성론에서는 제일 먼저 천지가 생성되기 전에 淸氣와 濁氣가 있어,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淸氣와 濁氣 두 기가 상호 접촉하여, 한 무더기의 기에서 한 줄기 바람이 바로 일어났다. 두 기가 또 다시 접촉하여 푸르고 그윽하면서, 발갛고 붉은 한 조각을 만들었다. 푸른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한 것은 내려가 땅이 되었다. 淸濁二氣互相接觸, 一股氣 一路風就興起了. 兩者又接觸, 形成青幽幽 紅彤彤的一片, 青的上昇爲天, 濁的下降爲地”⁹⁾ 이처럼 우주 생성 이전에 두 기가 작용하여 천지를 만들고, 이어서 하늘의 별들도 탄생하게 된다. 즉, “금, 목, 수, 화, 토가 생겨났다 金,木,水,火,土門門產生”¹⁰⁾고 생각하면서, 천지가 탄생되는 과정과 음양오행을 언급하고, 인류와 천지는 모두 오행의 변화에서

9) 『宇宙人文論』, 民族出版社, 1984, 11쪽.

10) 『宇宙人文論』, 앞의 책, 33쪽.

탄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류의 탄생을 『宇宙源流』에서는 陰陽五行과 결부시켜 언급한다. “사람의 신장은 水에 속하며 검은 것이고, 사람의 간은 木에 속하며 푸른 것이며, 사람의 심장은 火에 속하며 붉은 것이다 人腎屬水墨, 人肝屬木青, 人心屬火紅”. 과거 사람이란 무엇이고, 인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토렘과 원시신앙의 단계를 넘어 哲理를 가지고 해석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마치 董仲舒가 先秦儒家에서 人道를 중시하고 神道를 경시했던 경향을 탈피하여, 陰陽五行을 이용하여 유학을 개조한 것과 대조된다. 우주론이나 창제신화, 그리고 인류기원에 있어서도 원시신앙의 믿음과 다른 논리적 이론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彝族은 자신들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文獻이나 傳說, 神話 등에서 中國傳統의 철학 개념들을 많이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氣, 太極, 無極, 五行, 八卦, 兩儀, 四象 등이다.

彝族의 宇宙論이 최종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明代(後期) 정도로 보는데¹¹⁾ 漢族의 우주론은 이미 그 이전에 완성되어 彝族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원시신앙에서 숭배하는 자연과 조상 숭배는 결국 天人關係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天은 바로 彝族 사람들의 실천과 인식능력이 도달하는 대상 客體인 自然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漢族철학에서 대표적인 우주관과 彝族의 우주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彝族은 “세상 모든 일과 사물의 뿌리는 모두 清氣와 濁氣의 두기다. 萬事萬物的總根子都是清濁二氣”¹²⁾라고 생각하여 氣로서 宇宙 森羅萬象을 풀이하었다. 그리고 그 氣는 清氣와 濁氣로 구분하여 풀이하었다. “清氣는 우주를 깔고, 濁氣는 우주를 덮는다 清氣布宇宙, 濁氣罩宇宙”¹³⁾에서처럼, 원시신앙과 달리 哲理를 부여한 우주론을 漢族의 氣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것은 『老子』의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는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万物”, 『周易』繫辭傳의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

11) 王路平, 傅責中, 「試論古代彝族宇宙論的產生和形成」, 『雲南社會科學』, 雲南社會科學, 1991, 第5期, 53-54쪽.

12) 『宇宙人文論』, 앞의 책, 59쪽.

13) 『彝族源流』, 貴州民族出版社, 1989, 669쪽.

의는 사상을 낳는다 太極生兩儀 兩儀生四象”, 그리고 周濂溪가 쓴 『太極圖說』의 내용도 일맥한다. 즉, “무극이고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그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정이 된다. 정이 음을 낳고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정하여 서로 뿌리가 된다. 음으로 나뉘어지고 양으로 나뉘어져 양이가 세워진다. 양은 변하여 음과 합하고 수·화·목·금·토를 낳는다. 오기가 순조로이 넓게 덮여져 네 계절이 움직인다. 오행도 하나의 음양이다.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漢族 철학에서 우주 생성을 언급하며 말하는 陰陽과 이것이 확대된 陰陽五行 개념도 彝族의 문화 속에 전파되었다. 고대 彝族은 1년을 36일씩 10달로 나누었는데, 각 달은 五行과 陰陽으로 나누어 명칭이 있었다.¹⁴⁾ 단, 五行에서 金대신 銅이나 鐵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彝族의 雌雄사상과도 관련이 깊다. 『天地祖先歌』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여 우주 만물을 만든다고 여긴다. 사람 또한 음양의 변화 속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다.¹⁵⁾ 이러한 관념은 앞의 자료 뿐만 아니라 郭店에서 발견된 『太一生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¹⁶⁾ “대일이 물을 낳고, 물이 다시 되돌아 도와 대일이 되고, 이것이 하늘을 이루고, 하늘이 다시 되돌아 도와 대일이 되고, 이것이 땅을 이룬다. 하늘과 땅이 다시 돌아가 서로 도와 신명을 이룬다. 신명이 다시 되돌아가 도와 음양을 이룬다. 음양이 다시 서로 되돌아가 도와 사시를 이룬다. 大一生水, 水反輔大一, 是以成天. 天反輔大一, 是以成地. 天地(復相輔)也, 是以成神明. 神明復相輔也, 是以成陰陽. 陰陽復相輔也, 是以成四時.”

彝族은 자신들의 고대 문헌에서 漢族의 철학적 개념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清氣와 濁氣는 사람의 근본이다 清濁人

14) 蕭萬源 外 主編, 『中國少數民族哲學史』, 安徽人民出版社, 1992, 428쪽.

15) 蘇克明, 劉俊哲, 「試論彝族先民的天人觀」, 『西南民族學院學報』, 西南民族學院, 1994, 第6期, 17쪽.

16)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125~126쪽.

根本”¹⁷⁾라며 氣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生과 死를 氣의 離合集散으로 보았던 『莊子』의 사상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漢族의 精神文化는 彝族의 生死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다. 彝族의 葬禮는 전통적으로 火葬이다. 火葬이 彝族에게 가진 의미는 망자의 육신에서 영혼을 해방시켜 나오게 하는 것이다. 畢摩가 주관하는 의식을 통해 조상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고원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의 생활과 밀접하다. 그러나 이러한 火葬도 신분이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국한되고, 나머지는 土葬이나, 鳥葬을 하였다. 그러나 중원의 권력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던 明清시기 이후 雲南이나 貴州에 거주하는 彝族은 漢族의 영향을 받아 土葬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물론 문화적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 涼山彝族에게는 火葬의 풍속이 오래 남아있었다.

3. 수용의 양상

문화의 변천에 있어 정신문화는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취한다. 漢族과 彝族 정신문화의 접변으로 발생한 것은 彝族 문화에 또 하나의 정신문화를 이루었다. 지리적으로 편벽한 지역에 위치한 彝族은 비교적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漢族 문화와의 접촉, 외래문화의 전파 등으로 진행되는 문화접변 속에 새로운 양상을 지니고 있다. 특히, 漢族 문화에 오랜 시간 노출된 지역에서는 도교와 불교를 비롯하여 漢族의 전통 사상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雲南의 永仁縣이나 巍山 지역에 거주하는 彝族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문화접변을 통한 정신문화의 변화 속에서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도 발생한다. 특히, 종교는 의식 형태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발전 과정 속에 있는 彝族 사회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 문화간의 접촉에 따른 문화지체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彝族이 漢族의 종교인 도교를 수용하였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

17) 『彝族源流』, 앞의 책, 237쪽.

다. 그것은 도교의 신령 같은 것들이었고, 도교에서 주장하는 長生不死 같은 것은 믿지 않고, 그들의 고유 신앙을 따랐다. 이상의 것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문화 수용에서 할인율이 적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기원이 같다. 둘째, 문화적 공통점이 많다. 셋째, 생존의 문제로서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첫째, 문화적 기원이 같은 경우다. 도교가 彝族 사회에 전파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彝族 사회에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도교가 소수민족의 민간신앙과 원시신앙 등을 흡수하며 완성되었다는 점과 도교의 모체인 五斗米道의 주요 발원지가 四川지역으로 彝族과 발원지와 거주지가 같아, 문화가 전파되는 데 있어 문화적인 할인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張道陵이 창조한 초기 도교에서 중시했던 占星祭天, 신에 제사 드리고 귀신을 물리치는 ‘鬼道’ 등은 彝族, 白族, 納西族의 원시 종교 신앙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도교의 교의가 그들의 신앙에 융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¹⁸⁾

둘째,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경우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교와 彝族 민간신앙과의 유사점이 많았기에 문화적으로 비교적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예를 더 들어보면, 도교의 西王母나 『莊子』의 眞人は 彝族 원시씨족 사회의 大祭司長이자 근대 노예사회의 여성 노예주인 ‘西嫫’와 유사하다. 또한 도교에서 거론되는 조롱박에 얽힌 이야기처럼 彝族의 삶 속에서도 조롱박에 얽힌 이야기 들이 많다. 도교에서는 唐代의 八仙 가운데 하나인 張果老가 허리에 조롱박을 가지고 다녔다. 唐末宋初시기에는 陳搏이 “재에 커다란 박을 벽에 걸어두었다 齋中有大瓢卦壁上”¹⁹⁾ 그리고 彝族의 홍수신화에서 彝族의 조상이 조롱박에서 나왔고, 죽은 뒤 魂이 조롱박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검은 것을 숭상하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도교와 도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玄’의 의미는 검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검은 것이 아니라 우주의 깊고 광활하고 끝없는 상태의 검은 느낌을, 오묘하고 막막하고 그지없는 느낌을 수반한다. 특히 竹林七賢이 老莊사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魏晉시기의

18) 楊學政, 앞의 책, 序文.

19) 『宋史』隱逸上·陳搏.

학문을 ‘玄學’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현의 의미가 그러하다. 그런데 彝族을 부르는 다른 명칭 중에 ‘納蘇’, ‘諾蘇’, ‘乃蘇’ 등이 있는데, 여기서 ‘蘇’는 族이나 사람을 뜻하고, ‘納, 諾, 乃’는 검은 것을 뜻한다. 彝族의 생활 풍속에서도 검은 것을 중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흑색이 吉祥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기 전 검은 연기를 피우고, 이제 막 달이 찬 아이가 처음으로 외출할 때 머리에 검은 것을 묻히는 것, 결혼할 때 증매한 사람의 얼굴을 검게 칠하는 것이 그렇다. 그밖에도 天과 地와 水에 대한 숭배와 이에 대한 중시 등이 있다.

셋째, 생존의 문제로서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다. 어떻게 보면, 이는 강제적인 문화접변의 경우와 양상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 시기에 소수민족의 전통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漢族과의 혼인이 장려되거나, 漢語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당시에 티베트의 불교 사원이 반 이상 파괴되고, 승려의 환속을 강요하거나, 회교도들에게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가 파괴되었다. 이에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漢族化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문화대혁명시기에 벌어진 漢族化는 漢族이 가진 전통문화와 언어, 사회제도과 다른 것들에 대하여 봉건주의, 수정주의, 혹은 미신으로 낙인찍어 비판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문화대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 내재되어있던 것이 표출된 것으로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민국시기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공산당은 가난한 彝族과 漢族은 형제라고 선언하며, 소수민족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彝族은 공산당을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羅羅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왔던 彝族의 명칭을 彝로 고쳐 공식명칭으로 정하였다. 羅羅는 오번 가운데 한 부족의 이름으로 추측된다. 원대이후 彝族을 가리키는 말이 민국시기까지 사용되었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칭호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청동기의 기물을 의미하는 彝를 채택하였다. 현재까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문화수용에 적극적이다. 특히, 개혁개방이후에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수용에서 할인율이 적은 것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적 성향보다는 경제적 문제와 발전으로 그 성향이 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4. 수용에 있어서의 변화 요소

과거 수천 년 내려온 문화접변과 정신문화의 수용 양식과는 달리, 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소수민족과 漢族간의 문화접변보다 그들과 세계문화와의 문화접변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에 도래했다. 이는 21세기의 메가트렌드인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가 소수민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변화 요소로서의 세계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이후부터 뚜렷해졌다. 근대 이후에도 彝族이 거주하는 지역에 漢族의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전파되는 漢族의 문화는 과거와 달리 漢族만의 정신문화가 아닌, 漢族이 수용한 세계 문화였다. 이러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전파되었고, 교통과 전파매체의 발달에 따라 그 속도와 영향이 커졌다. 중국의 다른 지역이 그러했듯이 雲南도 1800년대 말부터 서양의 문물과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된다. 특히, 선교사에 의하여 교육과 의료 사업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종교문화가 전파된다. 물론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彝族의 전통 축제인 祭密支에 참가하는 것을 불허하기도 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彝族 출신 가톨릭 사제도 탄생하였고, 1988년에는 彝族을 위한 신약성경이 출판되기도 했다. 서구 종교의 彝族 사회 전파로 彝族 사회는 전과 달리 교육, 의료, 문화 방면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점차 彝族의 정신 문화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변화 요소로서의 정보화이다. 여기에서는 정보화의 의미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彝族이 처한 환경에 의거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빈번해졌다는 측면에서 텔레비전의 보급, 교통의 발달과 이를 통한 유입인구의 증가 등으로 알아보았다. 현재 메콩강유역 경제협력체(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중심지인 雲南은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과거 일본의

20) 覃光廣 외, 『中國少數民族宗教信仰』, 태학사, 1997, 273쪽.

중국점령을 저지하기위해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사천과 雲南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였고, 그로인해 곤명은 중국에서 1945년 한때 좋은 공업기반을 가진 도시가 되기도 했다. 또한 근대이후 雲南과 베트남을 연결한 철도를 비롯하여, 1952년 사천과 雲南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통, 1957년에 涼山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 1961년 涼山自治區 전역에 도로 설치. 成都와 곤명간에 377km에 이르는 철도 완성 등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雲南省의 관광수익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관광수입뿐만 아니라 雲南지역 전체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중국외래 관광객수가 44%나 줄어들었음에도 雲南의 관광객수는 증가했다. 특히, 1999년 곤명에서 열린 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꽃의 도시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였고, 이를 계기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石林彝族自治縣의 경우 관광업은 빠른 발전을 이루어 石林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大小石林 관광지에 오는 여행객은 연인원 237만 명으로, 관광 직접 수입은 2.97억원이다. 전현의 재정총수입은 5.3885억 원이고, 현금 지방재정수입은 3.9542억원이다. 농민 연평균 순수입은 4216원으로, 2007년에 비하여 7.2% 증가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13804원으로 2007년 대비 33.75% 성장하였다. 현 구석구석에 텔레비전 보급도 늘어나고, 수신시설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08년 말 전 현의 텔레비전 시청 가능 인구가 98.9%에 이르렀다.²¹⁾ 이러한 외적 변화는 소수민족 지역에 교육과 방송매체를 통한 표준어의 전파와 이에 따른 민족 언어의 소멸 등, 다양한 형태로 雲南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문화와 사상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셋째, 변화요소로서의 민주화이다. 1958년에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때 69만 명 정도의 노예가 해방되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이족 가운데 우호적인 인물들을 앞세웠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노예제 해방이 진행되었다. 涼山彝族의 참사는 중국 정부가 민족단결을 지키

21) 郝時遠, 王喜恩 主編, 『中國民族區域自治發展報告』(20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316-318쪽.

고, 친중국계에 대한 지원의 형태 속에서 이루어졌다. 문명과 미개란 이름으로, 무력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민주화에 따른 세계적 흐름 속에 분명 변화할 것이다. 예로부터 漢族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天命思想이나 王道政治의 理想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족이 얘기하는 ‘中國’과 ‘天下’는 그 구체적인 공간과 범위는 물론 주체인 ‘華’의 민족적 실체도 유동적일 수 있다. 중화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華’와 ‘夷’로 구분되며, ‘夷’의 본질적 속성이야 어쨌든 그들이 ‘華’에게 ‘不臣’의 태도를 보이거나 ‘華’의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²²⁾ 이러한 입장을 좁게는 漢族과 소수민족간의 관계에서, 넓게는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함 속에 조화를 강조하는 和而不同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中華思想간에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다. 과거 漢族은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우월적 위치’에서, 和而不同의 이상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소수민족에게 漢族보다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 雙語教學의 실시, 산아제한 정책에서의 예외, 전인대 구성 및 대학 입학에서의 특혜 등. 그런데 그 환경적 조건은 우월적 존재감이 내재된 상태에서였다. 자신들의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양적·수적 우위에 근거한 여유로움 속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대내외적인 원인에 의해 크게 변화될 소지가 많다. 소수민족 문제는 내적인 동인과 외적인 동인이 함께 존재하며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적인 동인으로는 소수민족간 혹은 漢族과 소수민족간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과 중국정부의 변화에 따른 소수민족의 반응, 즉 발전할 때는 약하고, 혼란기에는 강하게 일어섰던 역사적 교훈에서 소수민족과 漢族 간의 문화접변이 급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 외적인 동인으로는 소수민족이 거주한 지역에 인접한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주변국과 소수민족간의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 및 주변국의 견제 등이다. 이러한 것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소수민족의 주장이 커지게 될 때, 소수민족과 漢族의 문화접변과 정신문화의 수용이 변할 수 있

22)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主主義」, 『哲學』, 韓國哲學會, 1992, 47-48쪽.

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홍콩과 대륙간의 갈등 해소와 향방이 주목된다.

소수민족은 중국 국토의 64% 정도를 차지하며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인구 가운데 92%정도는 漢族이고, 나머지 약 8%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9기 전인대 대표의 민족 성분을 분석한 결과 소수민족은 428명으로 전체 대표총수의 14.36%를 차지하고 있다. 숫자로 보았을 때,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많다. 이로서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에 비해 2007년의 인구조사결과 소수민족이 약 1,523만 명 정도 증가했고, 전체 인구에서의 점유율도 8.01%에서 8.41%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숫자와 통계, 그리고 몇몇 관련정책만으로 소수민족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彝族의 역사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문화변동과 문화접변에서도 발견되었지만, 漢族의 유입과 漢族문화의 전파 속에서 소수의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정체성 또한 망각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문화는 접촉과 전파를 통해 진화되고 발전되어 간다. 그러므로 소수의 것이 다수의 것에 편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자의 경쟁 법칙을 두둔한다거나, 소수민족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나는 원론적인 질문이나,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의 장에서 거론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나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보면, 종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러나 인류 사회어디에나 종교는 존재했고, 이러한 종교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즉, 종교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인류는 종교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종교 신앙에 있어서, 통계가 가능한 403만 명의 종교 신앙자 가운데 90%

이상이 소수민족이다. 불교의 경우 합법적인 종교 행위 장소가 2,333곳에 해당하고, 신도수가 256만 명에 이른다. 중국 전역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념과 상업적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발전하는 불교사원과 달리, 철저한 계율과 수행에 따른 기풍을 진작하고 있는 遼寧省 海城의 大悲寺같은 사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추산에 따른 중국 내 개신교 신자는 1,600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비공식 교회까지 합친 중국사회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 7,0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는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적 박탈감 정신적 공허함을 보상받으려는 추세에 따른 것이고, 이는 소수민족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彝族의 전통신앙과 사상은 외부 문명과의 접촉 속에, 중국 사회에서 종교 신앙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새로운 양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사회가 경제적 박탈감에 따른 정신적 공허함에서 종교 신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소수민족의 전통신앙과 사상은 漢族과의 접촉, 앞서 살핀 수용에서의 변화요소 등으로 문화접변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56개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중국에서 각 민족간의 갈등을 제거하고 민족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존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중국 민족간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잡미묘하다. 어떤 시기에는 적대시하며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어떤 시기에는 평화를 공존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현재까지 비교적 원만하게 민족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소수민족 정책의 실시, 중국 경제의 발전, 중국의 국가적 지위 향상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 인구의 8%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소수민족은 중국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거주하는 곳에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소련 같은 독립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의 붕괴는 순식간에 진행될 것이며, 홍콩, 마카오를 비롯한 대만과의 문제도 하나의 중국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해진다. 더불어 변방국가와의 영토를 비롯하여 국방에도 일대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소수민족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중국은 국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소수민족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내외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 漢族과 티베트민족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국이후 최대의 민족 갈등이라는 위그르족과 漢族의 유혈 충돌 사건도 소수민족 정책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이후 중국 소수민족정책은 그 기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전과 이후로 소수민족의 양상과 소수민족을 대우하는 정책도 미묘하면서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세련된 소수민족 정책 속에, 발전하는 중국에 편승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객관적 시각의 유지다. 경제적 논리나 실용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 소수민족의 사상적 변화 역시 매우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몇몇 소수민족 학생은 이미 민족의식이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북경 올림픽 이후로 젊은 소수민족 학생, 그중에서도 유학생은 자신의 민족보다 자신의 국가인 중국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중국 소수민족의 변화를 광의적 시각과 협의적 시각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参 考 文 献

- 『宋史』, 『老子』, 『莊子』, 『宇宙人文論』, 『彝族源流』
 起國慶, 『彝族畢摩文化』, 四川文藝出版社, 2007.
 龔學增 外, 『當代中國民族宗教問題』,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0
 김충열, 『중국철학사』, 예문서원, 1996
 覃光廣 외, 『中國少數民族宗教信仰』, 태학사, 1997.
 蕭萬源 外 主編, 『中國少數民族哲學史』, 安徽人民出版社, 1992.
 楊學政, 『雲南宗教史』, 雲南人民出版社, 1999.
 王繼超 外, 『彝族傳統信仰文獻研究』, 貴州民族出版社, 2010.

- 龍正清, 『彝族歷史文化研究文集』, 貴州民族出版社, 2006.
- 易謀遠, 『彝族史要』,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 張純德 외, 『彝學探微』, 雲南大學出版社, 2007.
-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 巴莫阿依, 『彝人的信仰世界』, 廣西人民出版社, 2004
- 풍우란, 『중국철학사』, 형설출판사, 1990.
- 郝時遠, 王喜恩 主編, 『中國民族區域自治發展報告』(20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 김덕삼, 「문화접변으로 바라본 소수민족 교육」, 『教育問題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2006.
- 蘇克明, 劉俊哲, 「試論彝族先民的天人觀」, 『西南民族學院學報』, 西南民族學院, 1994年.
- 王路平, 傅責中, 「試論古代彝族宇宙論的產生和形成」, 『雲南社會科學』, 雲南社會科學, 1991年第5期.
-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主主義」, 『哲學』, 韓國哲學會, 1992.
- <http://www.yn.gov.cn> 2011년 10월 8일 인터넷 검색.
- <http://www.lsz.gov.cn> 2011년 10월 13일 인터넷 검색.
- <http://www.hhepb.gov.cn> 2011년 10월 13일 인터넷 검색.

❖ ABSTRACT

The study Yi-Zu and Han-Zu's moral culture.
- with focus on the Yun-Nan's Yi-Zu moral culture

Kim dug sam

This treatise studies on how ideology and value of Chinese minority race undergo change according to social, political transition that the Chinese minority race has experienced for a long time and I also have tried to elucidate how these kinds of their experiences have been effected upon their own life, even it is part of my basic subjects for my study. Hence I would give weigh to focus on contemplating proces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rather than predictive discussion of how their pursuing value will be transformed.

For my ebullient study, I'm willing to make Yi-Zu's moral culture become axis of my treatise, and capitalize on not only how Han-Zu's ideological philosophies have been disseminated, but also how acculturation have been taken place in Yi-Zu's moral culture system.

Yi-Zu has the longest history and the greatest their own population, even the largest residence of various Chinese minority races. And Yun-Nan is the historical place where not only various Chinese minority races have lived, but also acculturation between Chinese majority, Han-Zu and them have been begotten.

Above all, I would delve into traditional religion to understand Yi-Zu's moral culture as was already mentioned that it is my axis of treatise. Furthermore, I deliberated on how Taoism have been infiltrated Yi-Zu's moral culture, also how Han-Zu's ideological philosophies have been permeated Yi-Zu's, and what is more how to help themselves still remained in Yi-Zu's. Through my such these efforts, I analyze the aspect of embracing of Han-Zu's moral culture by Yi-Zu's and some facts of

vicissitudes about it.

Key Words

Yi-Zu's moral culture, Han-Zu's ideological philosophies, Acculturation,
Chinese minority race, Yun nan

논문접수일: 2012. 02. 15.

심사완료일: 2012. 03. 11.

게재확정일: 2012. 03. 16.